



봉우 컬럼

결과가 과정을 대변한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7:16~18).

이 말씀을 내 나름대로 요약하자면 ‘과정은 결과를 대변할 수 없지만, 결과는 과정을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11월 15일 대학수학능력 평가가 있는 날이다. 우리 교단 내에도 수험생들이 많이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공부한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달라. 실수 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것밖에 없다. 공부하지 않았는데 잘 찍게 해달라거나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달라고는 기도할 수 없다. 만일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노력하지 않으면서 운이나 요행을 바라는 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 수험생이 내게 기도를 받으러 왔다. 그래서 내가 “공부 많이 했냐?”고 했더니, 머리를 긁적이면 피식 웃었다. 많이 안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점수가 잘 나오기를 바라냐?”고 나무란 적이 있다.

행운을 바라는가? 그러나 행운은 노력이라는 친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도만 한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 늘 말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여러분의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대충 했는데 점수가 좋게 나왔어요.’ 그런 이변은 절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수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상만사 대충하면 결과가 대충 나온다. 그러나 무엇에든 차선을 버리고 최선을 다할 때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대충이란 균을 꼭 잡아야 한다.

부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도한다. 하나님도 하고자 하는 자를 더욱 밀어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

마지막까지 예수를 좇아 사도와 함께 모인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1:4)고 말씀하신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 묻는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행1:6). 그 질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7~8)고 말씀하시곤 하늘로 올라가셨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다. 메시아를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라, 곧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 그 흥분이 지금까지도 식지 않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차를 타건, 비행기를 타건, 예식장에서나 심지어 목욕탕에서조차 복음을 전하려 몸부림칩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주례를 서주하면서도 반드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는 사우나와 탕 속을 오가는 동안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전도하라 해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먼저 사람을 끌어다 성전에 앉혀놓습니다. 내가 말해놓고 내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따라오겠습

분으로 상급 받는 거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뿐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피 값으로 사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주신 예수님께 은혜를 갚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일이 바빠서, 새로 산 장비를 시험해봐야 해서, 장가를 가서..., 그렇게 세상일에 바쁘다고 아버지가 초청한 잔치를 외면하다가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국상급을 쌓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방관하고 외면하면 상급은 둘째 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당신을 무시한다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 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용신할 틈없이 채우며
기사와 표적 가운데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기대하는 이유도 그 오랜 압제로부터 구해줄 영도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단순한 희망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만 남기신 채 공중으로 사라지셨다. 그 이후의 여러 과정과 경험을 거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던져가며 복음을 전했다.

목사님이 입만 여시면 ‘전도하라, 전도하라’ 하시는 이유도 그것이 예수님의 유언이며, 또한 교회 본연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好衣好食)하라는

니까? 내가 잊을만하면 전도집회를 열어 여러분들을 뒤흔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하는 자 없이 모두가 천국에 갈뿐만 아니라 그날에 모두가 풍성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왕 노릇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모두가 나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잘 가르쳐줘서 이 많은 상급을 받는다며 기뻐 춤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상급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서로를 자랑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 찬송할 것입니다. 전도합시다. 이 전을 채웁시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면 뭐할 겁니까? 직

이 닫히면 능히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베푸실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잡아 천국에서 왕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는 11월 28, 29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전도집회가 계획되어 있다. 많은 성도들이 40일 작정 기도에 뜨겁게 참여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하는 대집회다. 단 이틀이다. ‘와보라, 가보자’하며 힘껏 전도하여 그 전을 용신할 틈 없이 채우자.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오직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遺言)이다.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은사집회

장소: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날짜: 2018. 11. 28~29 저녁 8시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8:1~8)

과부의 생각은 너희와 달랐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의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하여 한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사람을 아주 우습게 아는데다가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상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과부는 그 재판관을 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멀리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욕하고 인격 모독하는 장면 말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동네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이제 그만하게. 저 사람은 절대 당신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야. 차라리 다른 방도를 찾아봐.”라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과부는 매일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못된 재판관이 그 과부에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 봤다. 징그럽다. 내가 해결해줄 테니 제발 그만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비유의 첫 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눅18:1). 무슨 말입니까? 그 과부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낙망하여 포기하지 않았습니 다. 그 과부가 처음 그 재판관을 찾아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할 것과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 과부가 그 사람 하나였겠습니까? 그 동네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부가 문제를 해결한 것은 낙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남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비유 뒤에 주님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18:7~8)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못된 재판관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귀찮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생각이 그 과부와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1:6~8)라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11:12)고도 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10:38~39)고 말씀하심으로 중도에 낙담하여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당신이라면 매일 그런 재판관을 찾아



총회장 이초석 목사

아 갈 수 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래, 이건 불가능해.’ 하며 그만 두지 않았을까요? 혹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응답이 바로 안 오면 그만 두고, 문을 조금 두드리다가 안 열리면 그만 두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구하라 그러면 얻겠고, 찾아라 그러면 찾겠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몇 번 구하고, 몇 번 찾고, 몇 번까지 두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은 낙망치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과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주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18:8).

저는 이것을 ‘기필코’ 근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물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압박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을 하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

도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기를 청했으나 야곱은 축복을 받기 전에는 보낼 수 없다며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이 정신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었습니다(창32:22~32).

이런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생각은 아무것도 응답받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존심 좀 낮추면 ‘더러워서~’, 이러면서 그만두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는 매일 그 밤에 그 반찬으로 살아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잘 아시지요?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

해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녀 면전

에 대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막7:27)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신 것입니다. 분명 그녀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여인은 기필코 딸을 고치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주여 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막7:28)고 말합니다. 자존심이 낮아도 꿈쩍하지 않는 그녀를 보시고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며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소경 바디매오도 반드시 눈을 뜨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주위에서 ‘조용히 해라. 날 때부터 소경이고, 거지 주제에 왜 이리 소란이냐?’고 핀잔을 줬도 개의치 않고 예수를 목청껏 불러 소원을 이뤘고(막10:46~52),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자의 결말도 기필코 정신이 이룬 쾌거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자존심을 세우려면 때론 자존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롬8:32)? 그럼에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처럼 반드시 병에서 낫고야 말겠다, 반드시 한나처럼 자식을 갖고야 말겠다, 반드시 취직하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뿌리 없는 나무처럼 환경에 휘둘리고, 세상 통계에 휘둘리고, 주위 사람들 말에 우왕좌왕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귀는 막고 눈만 뜨고 가야지요. 과부처럼 될 때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열 번 짝아서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

2014년 9월 8일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인 시청광장에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한 날입니다. 본래 5월 예정이었으나 국가적인 문제가 있어 연기했는데 다시 알아보니 집회할 수 있는 날이 그 해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목사에게 가서 물어보고, 또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계속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추석날이 비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바로 그 날이다’라고 기뻐했습니다. 이 날짜를 공포하니 ‘명절이라 누가 오겠냐?’며 다들 회의적이었지만, 제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진행했더니 인산인해로 사람이 물려들지 않았습니까?

이번 11월 28, 29 양일에 있을 올림픽공원 집회는 대대적인 홍보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팬투팬 전도로 그곳을 채워야 합니다. 전도할 대상을 한 번 찾아가서 안 온다고 하니까 그만두면 안 됩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야 합니다. 온다는 말을 할 때까지입니다. 그런 생각일 때 그곳이 잘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꼭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눅18:6).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투자과 투기

가치투자의 창시자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투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분석’이란 안전과 가치의 확고한 기준에 비추어 사실을 연구한다는 뜻이며, 투자에서 추구하는 ‘안전’은 절대적이거나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안전이란, 정상이거나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에서 손실에 대비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채권은 예외적이거나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부도가 나는 채권을 말하며, 마찬가지로, 안전한 주식도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만 아니면 주가에 걸맞게 기대를 충족시키는 주식을 말합니다. 조사나 경험에 비추어 손실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다면 이는 투기적 상황입니다. 한편 ‘만족스러운 수익’은 ‘적정 수익’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현재 금리와 배당수익률은 물론 자본이익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은 주관적인 표현이며, 이는 투자자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수용한다면 아무리 낮은 수익이라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붕괴되어 가장 매력적인 가격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주식을 투기적이라고 위험하게 인식하고, 반대로 시장이 상승해서 위험한 수준이 되었을 때는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도 투자라고 착각합니다. 따라서 수익 기회를 노릴 때에는 반드시 위험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주

식 투자에는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손실과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투기적 요소가 있더라도 신중하게 위험을 줄이면 ‘현명한 투자’가 되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많은 돈을 걸면 ‘어리석은 투기’가 되지요. 투자와 투기를 혼동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방어투자자라 함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투자에 대해 자주 고민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개인투자자는 물론 펀드매니저도 시장을 따라잡기 힘들기 때문에, 방어투자자는 매력적인 종목을 선택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량 펀드나 투자자문사에 가입하거나, 직접 투자하려면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매수하는 ‘정액적립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 우리의 신념과 신앙도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의 믿음, 자기 확신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위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적인 믿음, 곧 계시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자기 확신에 의해 영접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구원의 믿음은 내 속에서 우려나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믿음인 것입니다. 신념은 인간의 뜻에서 나오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옴을 알 때 믿음이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미경 권사**

:: 세상을 보는 창 ::

염려를 이기는 습관

우리 교단은 11월 올림픽공원 전도집회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회 중이다.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중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신앙이 어린 몇몇 사람들 중에 재밌는 현상을 보게 된다. 그것은 기도 실컷 해놓고 자신들의 기도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시 안고 집으로 가는 모습이다. 이 현상이 다른 사람만일까 생각해본다. 성경에서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테(merimnate)’이다. 이 말의 어원은 ‘메림나오’인데 ‘나누다’라는 뜻의 동사와 ‘마음’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말이다. ‘염려하면 마음이 나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갈라지게 하고, 집중력을 반토막 낸다. 염려는 우리의 시각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사방팔방으로 흩어놓는다. 그렇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염려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염려와 싸움을 해야 한다. 참 인간의 모델이요, 죄 없으신 예수님도 염려와 싸우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무려 세 번씩이나 반복하며 기도하셨다(마26:36~44).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으로 염려하셨지만, 염려와 싸워 이기신 것이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하늘 아버지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이겨내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지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하나님은 바울의 펜을 사용하셔서 염려를 이기는 습관을 알려주셨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6~7). 즉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잠시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염려를 아뢰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시간을 가져야 한다. 기도시간이 길어질수록 염려는 줄어들고, 기도시간이 짧아질수록 염려는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목사님의 경구(警句)

내가 아는 목사님은 문무(文武)를 따지자면 웅맹한 무장에 가까우신 분이다. 그러나 지근거리에서 새롭게 느끼는 목사님은 다윗과 같이 문무와 예(藝)를 겸한 분임을 새롭게 느낀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자성어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정문일침(頂門一鍼,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는 따끔한 충고나 교훈을 이르는 말)이요, 일침견혈(一針見血, 어떤 일의 본질을 파악하여 단번에 정곡을 찌름을 비유하는 말)이다. 내가 특히 감탄한 목사님의 경구는, 1. 귀명창이 명창이다: 창을 하든 대화를 하든 목회를 하든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인데, 매우 탄복한 경구이자 내 삶에 큰 지침이 되고 있다. 2. 믿음은 거룩한 협박이다: 위독한 권사님이 병문안 오시기를 여러 번 강청하니 목사님께서 새벽에 잠을 내서 오셨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하니 대답하신 말씀이다. 3. 복음은 장엄한 선포다: 어찌 그리 담대히 앞일을 예견하시고 확신하실까 궁금한 터에 와 닿은 말씀이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이삭이 번제 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종들에게는 ‘내 아들 이삭과 같이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함은 하나님께는 믿음의 거룩한 협박이며 복음의 선포 아닌가? 4. 왜 땅을 치고 우는가: 그야말로 땅을 치며 웃었다. 내 탓을 해야지 왜 남을 탓하느냐? 내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지 왜 땅을 치며 우느냐. 땅이 무슨 죄인가. **이광주 전도사**
cjcc1004@hanmail.net



:: 생명의 말씀 ::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신사임당은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율곡 이이 선생을 낳고 교육시킨 어머니의 위치로서만 우리나라 여성인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시와 문장 글씨와 그림은 남성 위주의 조선시대에도 탁월하였다. 이런 일화가 있다. 신사임당이 한 혼인 잔치에 갔는데, 어떤 가난한 아낙이 빌려 입고 온 비단치마에 음식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얼룩이 저서 울상인 것을 보고 그 부인에게 그 치마를 잠시만 빌려달라고 했다. 그 치마를 받아든 신사임당이 치마의 얼룩진 부분에 몇 번 그림붓을 가져다 대었다. 붓이 움직일 때마다 그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치마위에 아름다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사임당은 그 자리에서 얼룩이 진 비단 치마폭에 포도 줄기와 풍성한 포도송이들을 그려주었고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 빌려온 치마 값을 갚아주도록 하였다. 나는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치마폭이요, 화선지라 생각한다. 아무리 지금 잉크로 얼룩져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멋진 그림으로

그려내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잉크 자국을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그 잉크 자국은 화가로 무언가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고 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신앙생활은 자기생각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좇아갔고(창12:4),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마26:39)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붓을 들어 멋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신 것이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32년 동안 교사로 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청년시절,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버스에서 어느 자매에게 전도를 받아 철산예루살렘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의 영적인 말씀에 반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가족들은 제가 예수에 미쳤으며 저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 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신경 쓰기 싫었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직접 본 저를 누구도 말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의 핍박과 외면 가운데, 어느 날 여동생이 “오빠, 정말 예수님 계셔?”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때가 기회다.’하고 동생을 인천교회로 데리고 가서 등록을 시키고 그 때부터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동생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전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동생과 기도하며 어머니도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송의동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기도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일을 맡긴다(눅19:17)’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던 중, 유아유치부를 발견하고서 전도사님께 유아유치부 교사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교사 자리가 한 군데 비어 있어서 사람을 찾고 있었다며 얼른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 저는 너무 기뻐 ‘바로 이것이 작은 일이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작은 어린 영혼을 위해 그들과 동행하며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길이 편치만은 않았습니 다. 교회가 인천 마가의 다락방, 서울 올림픽공원, 학생체육관, KBS88체육관으로 이전할 때마다 쉽지 않았습니 다. 다른 부서도 같은 어려움 속에서 오늘날까지 온 줄 알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목사님을 바라보며 따라오다 보니 하나님이 축복해주셔서 교회 안에서 아내를 만나 이초석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도 하게 되었고, 멋진 두 자녀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아빠는 교회만 가면 장난꾸러기가 돼요.”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있다 보니 제 자신이 어린이가 되어 젊어지고 웃음이 그칠 날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이초석 목사님은 그런 저를 보시고는 “너는 어찌 만날 때마다 즐겁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도 위기가 왔습니 다. 아내가 정신병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허상이요, 실상은내가 이긴다.’

고 굳게 믿고 장인, 장모님과 함께 2010년 하계산상집회에 참석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초석 목사님의 안수를 받아 나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내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저의 일을 대신 해주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은 누구나 같이 할 수 있지만, 끝을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주님이 주신 직분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여 그날에 ‘잘 하였도다’라는 말을 듣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봉사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교사 32년 한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는 그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수행하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제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지금은 목사님이 ‘Jesus Center 방역(J.C 방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사업체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직분이 믿음을 지키게 해줍니다. 직분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절대 받은바 직분을 놓지 마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유아유치부 교사 주인섭 안수집사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

소망이 가진 힘

슬픔과 기쁨, 고난과 소망, 어두움과 밝음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서 공존하는 것이다. 이 모든 단어들의 표기는 다르지만 각각의 의미는 같지 않을까 싶다. ‘인생 참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인생이란 결코 아름답게 굴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는 로마서 8장 17~18절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 얼마 전, 박사논문을 쓰고 있는 친구가 물어왔다. “넌 어떻게 이 시간을 버텨?” 나는 2013년 3월 박사과정에 입학해 2016년 2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3년 만에 모든 과정을 마친 셈이다. 그땐 읽어야하는 논문과 전공서적, 그리고 써야하는 연구과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주어진 연구실에서 밤새는 일이 많았다. 특히 박사논문을 쓰는 과정은 한 가지 이상의 지병을 얻는다는 말이 돌만큼 고통의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논문심사 때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일은 죽기보다도 싫었다. 다시금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박사학위’라는 소망이 있기에 견뎌낼 수 있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약간의 고난에도 털털 떨고 쉬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난을 잘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작은 기대와 설렘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는 사람이다. 누구의 삶의 질이 더 높을까? 그렇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 설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호아킴 데 모사다의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서는 지금 당장 맛이 좋고, 행복하고, 여행하고 싶고, 즐기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미래는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누구나 성공하는 인생을 꿈꾸며, 성공한 사람을 동경한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인내하며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 3월 대학교수의 길을 선택한 후 나의 삶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 상황에 몸도 마음도 곤고해져 매일같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던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이 모든 신앙의 근원은 ‘장차’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진퇴양난이라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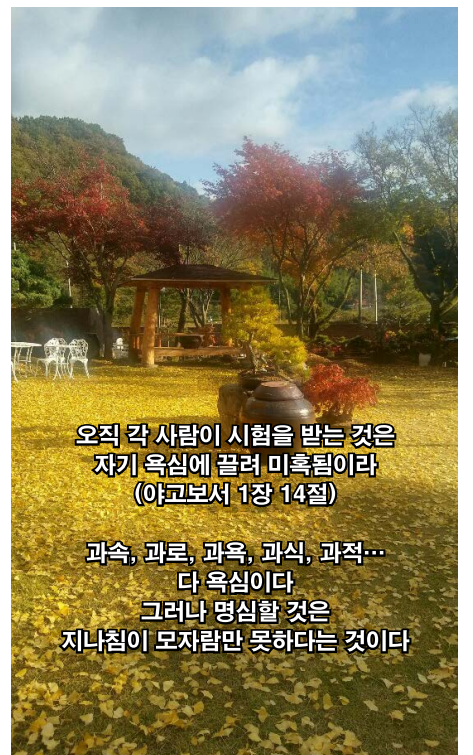
시는 이유는 장차 큰일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데, 우리는 모든 희로애락을 현재, 지금에 두기 때문에 약간의 힘들고 고난에도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롬8:25). 믿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결코 고난이 면제된 축복이 아니다. 즉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잘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기에 앞을 내다볼 수 없더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요셉과 바울처럼 탈선하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통은 죽음으로 인한 고통이 아닌 생명이 태어나는 희망의 고통인 산통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된 ‘장차’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삶 속의 고난을 통해 ‘소망이 가진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Dr. 권정미 집사 jmgood77@gmail.com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6:33). 크리스천이면 대부분 다 아는 말씀 구절이다. ‘그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나라, 천국을 말한다. ‘그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의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셋째 하늘이 기도 하지만,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상태이면 내 마음도 바로 천국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여기까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행위’는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태복음12:28). 회개가 그의 의를 구하는 행위라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즉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선포하는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행위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의 의는 잘 구하지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잘 모르는 듯하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비난하는 교회도 있으니 말이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지고, 성령을 힘입어 악한 영을 쫓아내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지혜택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제공될 것이다. 이제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에겐 그러한 혜택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빌3:20).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야고보서 1장 14절)

과속, 과로, 과욕, 과식, 과적... 다 욕심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하다는 것이다